

A-4. 2급 이개부 병변을 동종골과 혈소판 농축 혈장으로 치료시 차폐막 사용 따른 임상적 효과의 비교 연구

박순재*, 임성빈, 정진형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목적

치주 조직의 재생을 위해 골 이식술 또는 조직 유도 재생술과 같은 여러 가지 술식들이 사용되어 왔으며, 최근에는 성장인자를 병행하기도 한다. 본 연구에서는 2급 이개부 병변을 동종골과 혈소판 농축 혈장을 사용하여 치료 시 흡수성 차폐막의 사용 여부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술 전, 술 후 3개월, 6개월에 치주낭 탐침깊이, 부착상실 양, 치은퇴축 양을 측정해 비교하고자 하였다.

연구방법

1. 연구대상

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치주낭 탐침깊이 5mm이상의 2급 치근 이개부 병변을 가지는 20명의 환자, 총 27개의 하악 대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.

2. 연구방법

1) 술 전 처치 - 치석 제거술 & 치근 활택술, 교합 조정, 구강위생교육

2) 시술 과정 - blood sampling(10cc) → preparation of PRP → 열구 절개(필요시 수직 절개) & 전층 판막 형성 → debridement & 치근 활택술 시행 → 치근면 처치(Tc HCl) → 대조군(DFDBA+PRP), 실험군(DFDBA+PRP+Bioabsorbable membrane) 이식 → 봉합

3) 측정 방법 - 술 전, 술 후 3개월, 술 후 6개월

치주낭 탐침깊이, 부착상실 양, 치은퇴축 양

4) 통계 처리 - 각 군의 시간에 따른 비교(Wilcoxon signed ranks test)

- 시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(Mann-Whitney test)

결론

1. 두 군 모두에서 치주낭 탐침깊이, 부착상실 양은 술전에 비해 술 후 3개월, 6개월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.($p < 0.05$)

2. 두 군 모두에서 치은퇴축 양은 술 전에 비해 술 후 3개월, 6개월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.($p < 0.05$)

3. 군간의 변화량 비교 시 술 후 3개월과 6개월 사이에서 치주낭 탐침깊이, 부착상실 양, 치은퇴축 양의 두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

이상의 결과로 보아 2급 이개부 병변을 동종골과 혈소판 농축 혈장으로 치료 시 차폐막의 사용은 임상 지수에 있어 다소간의 향상을 가져오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다.